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우리이웃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7월 21일(음력6월 5일) 수요일 (주간) 제483호

절에서 스님처럼 살아볼까?

월정사, 한달코스 행자생활 '단기출가학교' 열어

9월 13일부터 40세 이하 남녀 대상
삭발염의 · 예불 · 울력 등 '출가사전체험'

모든 세속적 욕망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나를 찾고 싶을 때, 삶의 신산함이 가슴 한 곳을 저리게 할 때 종교와 관계없이 한번씩 꿈꿔보는 '출가'.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몸으로 부딪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출가자의 '삶', 그리고 내 안의 '불성'.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단기출가학교'가 개설됐다. 강원도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 달간 경내에서 '단기출가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단기출가학교 참가자들은 스님과 똑같이 삭발염의를 하고 스님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입교하고 이틀째부터 예불문 및 식당작법을 습의하고, 사흘째부터는 1080배와 삭발식, 수계식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행일정에 들어간다. 초발심자경문과 부처님 생애 및 기초교리, 산중대덕스님 수행담 특강, 포살법문, 청규암송 등을 통해 치닫는 마음을 다스리고 환계의식 전 자자회, 철야 3000배 · 용맹정진도 해야 한다.

교육생들은 매일 새벽 4시 아침예불을 드린 뒤 좌선과 <원각경> 독송, 백팔대참회를 해야 아침 발우공양을 할 수 있다.

이후 전나무 숲길 자연관찰, 좌선, 포행, 소임별 울력 등을 하다 보면 어느덧 저녁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저녁예불 뒤에는 소림무술이나 태극권, 요가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일과를 통해 인생과 세계의 이치를 깨달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깨달은 이치를 중생들에게 전해 해탈과 구원을 얻도록 하는 출가 본연의 정신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

교육기간 동안에는 담배를 필 수 없다. 사중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외에는 일절 먹을 수 없으며 신문, 잡지 등의 반입도 금지된다. 도량을 다닐 때는 항상 차수(두손을 앞으로 모아 단전에 붙이는 것)해야 하며, 남의 허물을 봐서도 안 된다. 이런 청규를 지키지 않으면 세 번의 경고 뒤 대중공사를 통해 퇴방될 수도 있다.

교육수료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정식행자로 인정되며, 조계종 교육원에 행자 등록도 가능하다. 단 만 40세 이하이어야 하며, 남녀 제한은 없고, 여성 참가자의 경우는 삭발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월정사 종무소(033-332-6664~5)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불교의 정신과 수행가풍을 배우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이번 단기출가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가를 삶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 남방불교국가의 불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승가와 자국의 승가를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실제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국가에서는 출가가 평생에 한번은 해야 하는 제도로 정착돼 있고, 이를 통해 불교를 제대로 인식하는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다.

월정사의 이번 단기출가학교는 출가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나 환상을 바로잡아 줄뿐만 아니라 승가교육제도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 스님은 "행자생활을 시작한 뒤 정식 계를 받기까지 80% 이상이 탈락하는 현실에서 단기출가학교는 사전 체험이라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며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이라크에 연꽃 피우세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7월 13일 자이툰 부대와 함께 이라크로 파병되는 강의중 군법사(소령 · 왼쪽)의 파견 신고를 받았다. 법장 스님은 "이라크 현지민을 돕는 지원군으로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강의중 법사는 12월까지 자이툰부대 장병들의 신행활동을 지도한다. 관련 인터뷰 14면 사진=박봉영 기자

사형제도 폐지안 국회 제출된다

유인태 의원 발의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7월 15일 사형제 폐지와 종신형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교계와 법무부간 사형제 존폐 찬반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사형은 인간의 기본권이자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빼앗는 반인간적인 제도"라며 "사형제 대신 종신형을 도입하면 폐지 반대여론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불교 등 7개 교단이 결성한 범종교인 연합은 사형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사형폐지 특별법안은 지난 15, 16대 국회 때 발의됐다 법사위에 상정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철우 기자**

2004 summer 휴가·방학
독서삼매에 풍덩!!
타블로이드 16면
부록 발행

이명박 시장 '봉헌' 사과

개인 홈페이지 통해 … 불교계, 공식사과 요구

2주일 넘게 끌어왔던 '서울시 봉헌' 발언 파문과 관련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7월 12일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다.

그러나 불교계 단체들은 이 시장의 사과가 미흡하고 적절치 않다며 14일 언론을 통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9일 조계사에서 '범종교시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16일 현재).

이 서울시장은 7월 12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긴급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수장들에게 "봉헌서를 낭독하게 돼 일반 시민이나 이웃종교인에게 공직자로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며 종교계에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 서울시장은 7월 14일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종교적 편향이나 정치적인 목적 등 다른 의미는 없으며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며 다시 한번 종교인들의 양해를 구했다.

한편 종교지도자협의회는 7월 15일 "종교계 수장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늦게나마 이명박 시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시장의 사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신 기자**

소승 · 대승불교 화합 첫 국제세미나

태국 마하출라롱컨大, 45개국 1천여명 참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화합을 목적으로 45개국 1000명의 불자가 참가한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가 태국에서 열렸다. 태국 왕립 마하출라롱컨대학(총장 프라 텝소훈)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일체된 수행:불자들의 연대와 협동'을 주제로 7월 16~20일까지 진행됐다.

한국대표로는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 스님 8명이 참가해 한국 비구니의 우수한 교육과 수행체계를 소개했다.

학술대회에서 해주 스님은 불교교육 분야에서 '한국 불교승가의 비구니 및 사미니 교육'을, 서울 아산병원 법사 지홍 스님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국 비구니의 병원봉사 현황', 불교방송 진행자 진명 스님은 '한국 여성불자들의 대중매체 포교 현황' 등을 각각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비구니를 인정하지 않는 태국에서 한국 비구니 스님들을 초청한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로, 이는 최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참가자들을 통해 한국 비구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진 결과로 보인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평가 좌담 4면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관계로 신문발송이 하루 늦어집니다

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할'

그림 · 조태호

능가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동해 실버타운
총 354세대 중 선착순 100세대에 한하여 혜택을 드립니다. 지금 서두르세요!
千古의 신비를 간직한 해오름의 고장, 양양에 위치한 동해실버타운에서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자손들에게 짐이아닌 당당하고 명예로운 삶!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 평화가 있는 여유!
식생활 등 품격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풍요! 바다와 숲이있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노인들의 소망이 묻어있는 독립된 생활!
동해실버타운으로 초대합니다. 부모가 편하면 자식들도 편합니다.
첨단 시설과 좋은 입지만이 자랑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비용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이 숨쉬는 곳!
동해실버타운입니다
가족과 함께 호흡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 동해실버타운
서울에서 2시간대, 편리한 교통권, 바다와 수림이 어우러진 자연휴양지 강원도 양양!
남애항과 남애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 설악산 등을 지척에둔 학마을에 동해실버타운이 위치합니다.
언제라도 찾아 오고, 돌아 가기 쉬운 지리적인 조건에 27평형 아파트 스타일의 동해실버타운은
가족들의 별장으로서도 가치를 더합니다.
1회 입주금으로 평생을 보장 받으십시요
• 식사는 물론 사우나, 헬스클럽, 당구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도자기 실습장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화상채팅장, 가족 주말농장 등 입주자를 위한 동해실버타운의 모든 시설은 이용 및 사용이 무료입니다.
• 120평 규모의 대형 연회장, 전망좋은 카페 등 각종 편의 시설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 동해실버타운은 설계에서 건설, 직접관리까지 원스텝 시스템으로 되어있어 공신력을 더 합니다.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대자연의 여유가 함께 합니다.
바람 한줄기, 태양의 눈부심, 초록의 나무들, 시원한 파도소리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든것을 바로 곁에 두고 시작하는 하루 동해실버타운에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 타회사와는 비교될 수 없는 편리한 27평형의 아파트형 구조!
편히 휴식할 수 있는 넓고 안락한 실내공간!
동해실버타운입니다.
동해실버타운 건물개요
구분 내역
연면적 16,288평
세대수 총 354세대
세대당평형 27평형(348세대)
50평형(6세대)
문의전화 : 1588-0586
서울 사무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7-1 신영빌딩 7층
양양 사무소: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점포매리 47-4
http://www.dhsilver.co.kr